

범죄통계 속의 성폭력

심선희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임예슬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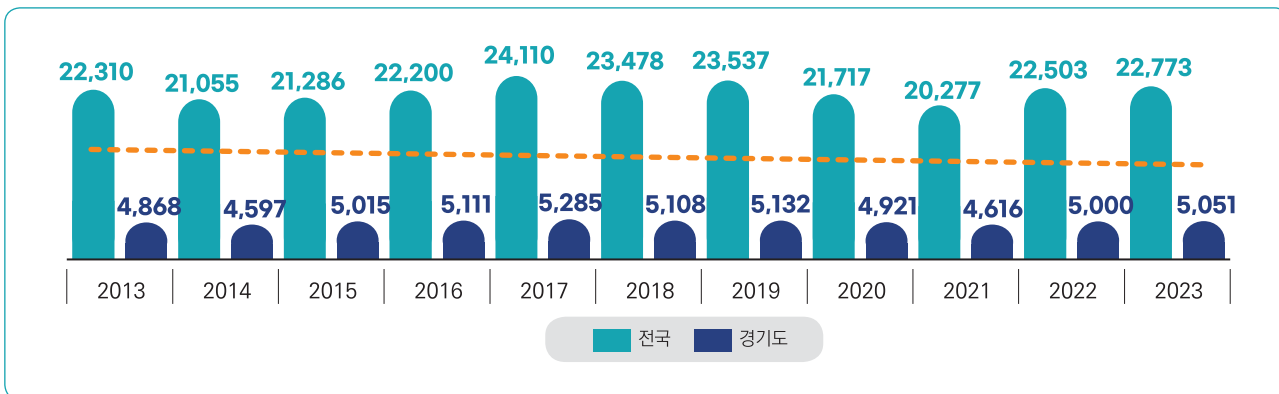
1 | 성폭력 발생 현황과 특성

가. 성폭력 발생 건수 변화 추이: 지난 10년간 감소와 증가를 반복

- 성폭력 발생 건수¹⁾는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형법의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강력범죄'(대분류) 가운데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기타강간·강제추행'(제299조) 건수를 통해 가능해 볼 수 있음(중분류).²⁾
- 「경찰청 범죄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성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2,310건이었고, 2017년에 24,110건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503건, 22,773건이었음. 경기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건 발생 수의 변화에 있어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에는 4,868건 발생했으며, 2017년에 5,285건으로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5,000건, 2023년에는 5,051건이 발생함.

그림 1 성폭력 발생 건수(2013-2023)

(단위: 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1) 발생 건수는 경찰이 입건하여 통계 원표를 승인한 사건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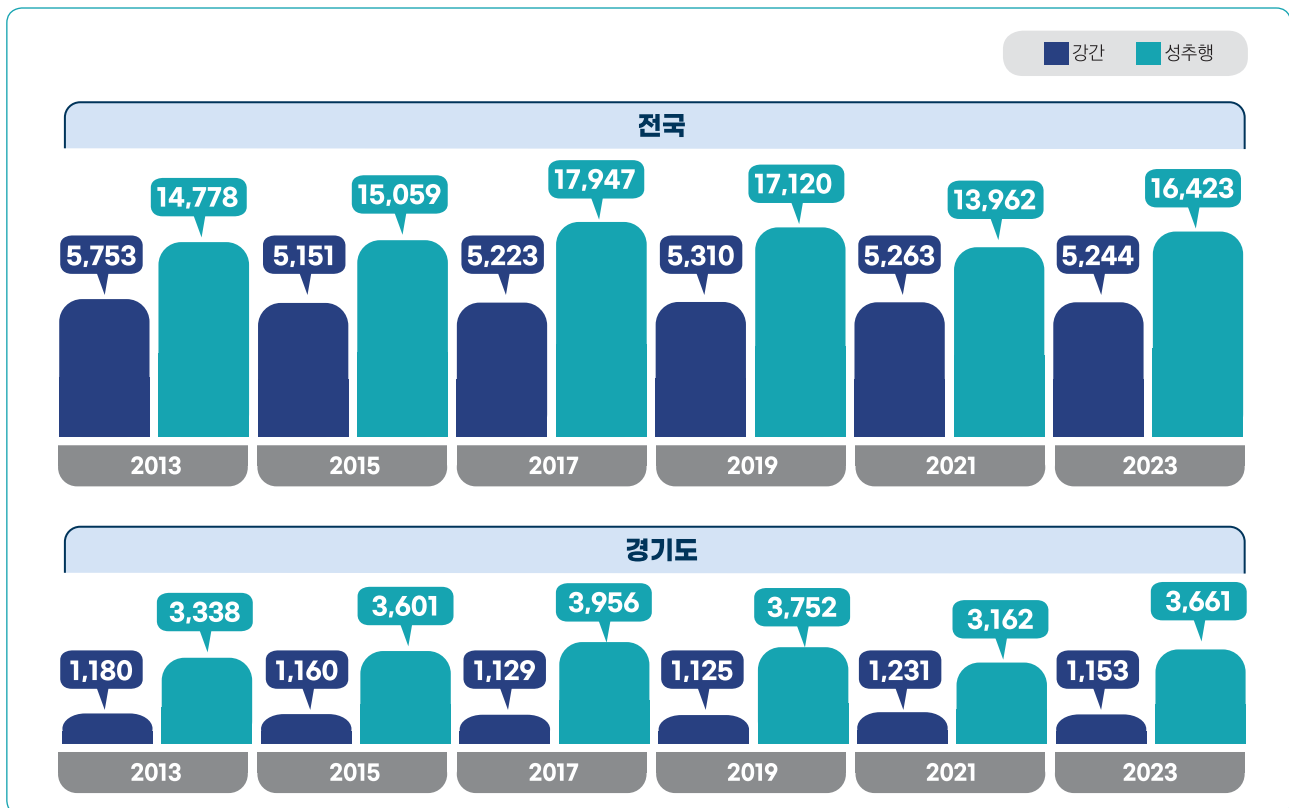
2) 2012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사강간죄'가 추가되어, '강간·강제추행'으로 이원화되었던 분류체계가 2013년부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으로 세분화되었음.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현재 시스템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죄명들을 별도로 분류한 것임.

나. 성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 '강제추행'의 비율이 '강간' 비율보다 높아

- 2012년 12월,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성폭력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이분법적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고,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짓는 기준은 성기 삽입 여부였음. 강간은 '성기 삽입'에 의한 성적 침해라면, 강제추행은 기타 모든 '비삽입적 성적 침해'를 포괄하는 형태였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가 추가되면서 비삽입적 성적 폭력의 유형이 좀 더 세분화되었음(박혜진, 2016).³⁾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사건의 90% 이상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집계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22,310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14,778건(66.2%)이며, 강간은 5,753건(25.8%)이었음. 2017년에는 '강제추행' 17,947건(74.4%)이며, '강간'은 5,223건(21.7%)이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은 16,423건(72.1%), '강간'은 5,244건(23.0%)이었음.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 '강제추행'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에는 성폭력 발생 건수 4,868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3,338건(68.6%)이며, '강간'은 1,180건(24.2%)이었음. 2017년에는 '강제추행'은 3,956건(74.9%), '강간'은 1,129건(21.4%)이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이 3,661건(72.5%), '강간'이 1,153건(22.8%)이었음. 경기도에서도 전체 성폭력 가운데 강제추행의 비율이 더 증가함.

그림 2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2013-2023)

(단위: 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주: 2023년은 분기별 잠정치로 죄목별 건수 공표전 자료임(최종검색일: 2024.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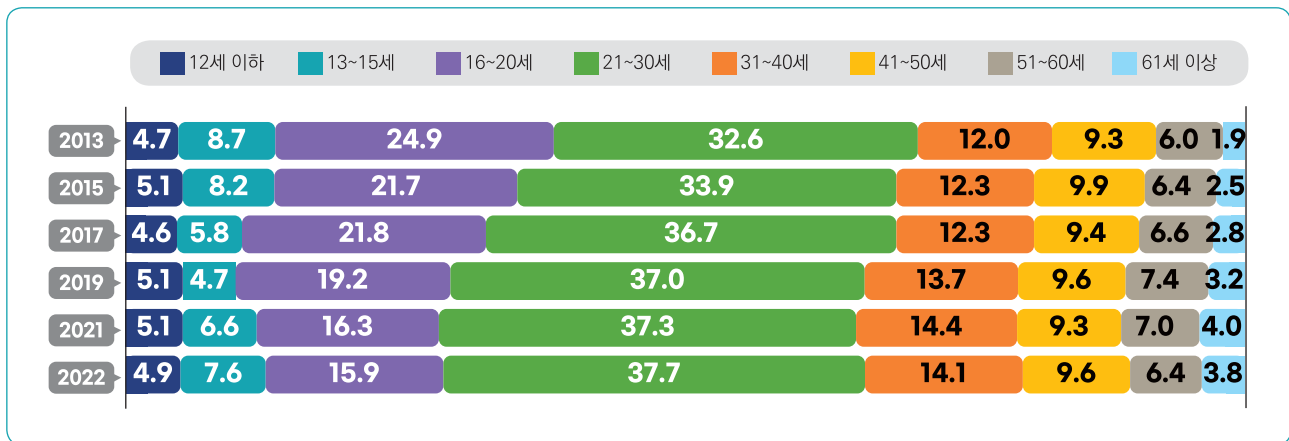
3) 박혜진. (2016).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28(2), 167-194.

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연령대⁴⁾ : 16~30세가 50% 이상

-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1~30세'가 30% 중반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16~20세'로 15~20% 수준임. 2013년에는 '21~30세'가 32.6%, '16~20세'가 24.9%임. 2017년에는 '21~30세'는 36.7%, '16~20세'는 21.8%이며, 2022년에는 '21~30세'는 37.7%, '16~20세'는 15.9%임.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대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21~30세', '31~40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16~20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또한 '31~40세', '61세 이상'의 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13~15세'의 경우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16~40세'의 피해자 비율이 67~7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피해 발생률이 각각 4~10% 수준으로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여성 성폭력 피해자 연령대별 분포 (2013-2022)

(단위: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주: 각 연도별로 피해자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수는 상이하며, 비율은 전체 사건 수 가운데 해당 연령대의 수를 계산한 것임.

라. 성폭력 가해자 지위(피해자와의 관계)⁵⁾ : '업무관계자'와 '지인'의 비율이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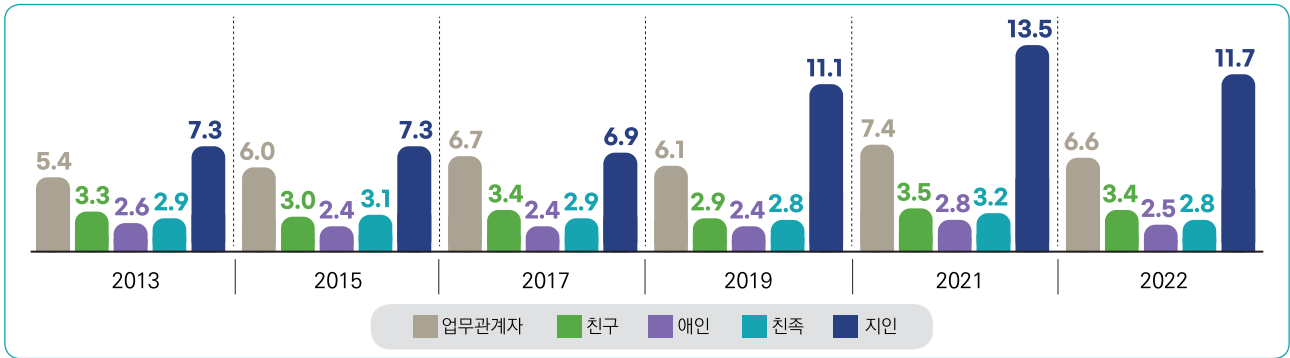
-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임.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사건 발생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1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이 이에 해당함. 이 가운데 '업무관계자'(고용자 + 피고용자 + 직장 동료 + 거래상대방), '친구', '애인', '친족'(동거친족 + 기타친족), '지인'을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자 지위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업무 관계자' 5.4%, '친구' 3.3%, '애인' 2.6%, '친족' 2.9%, '지인' 7.3%였음. 2022년에는 '업무관계자' 6.6%, '친구' 3.4%, '애인' 2.5%, '친족' 2.8%, '지인' 11.7%로 나타났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관계자, 친구, 애인, 친족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2018년부터 '지인'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4) 통계청의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5) 통계청의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성폭력 가해자 지위의 경우도 지역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그림 4 성폭력 가해자의 지위(2013-2022)

(단위: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주: 각 연도별로 가해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수는 상이하므로, 비율은 전체 사건 수 가운데 해당 대상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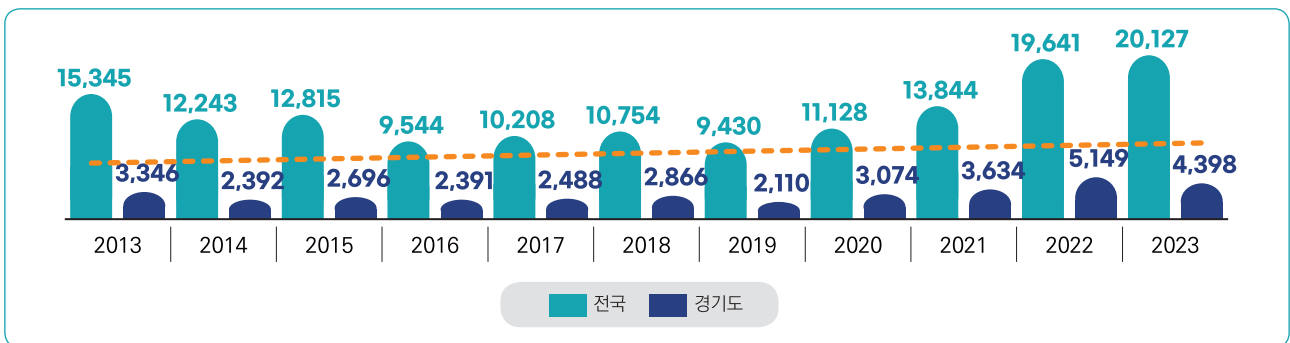
2 |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과 특성

가.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 2022년, 2023년에 급격하게 증가

-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는 「경찰청 범죄통계」의 '성풍속범죄'(대분류) 가운데 일부 항목(중분류)을 통해 가능해 볼 수 있음.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성풍속범죄를 14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음화등 반포',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자·제작·배포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등'을 디지털 성폭력으로 볼 수 있음.
-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15,345건에서 2016년 9,544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9,641건, 20,127건으로 증가함. 2020년 n번방 사건이 가시화되면서 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

그림 5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2013-2023)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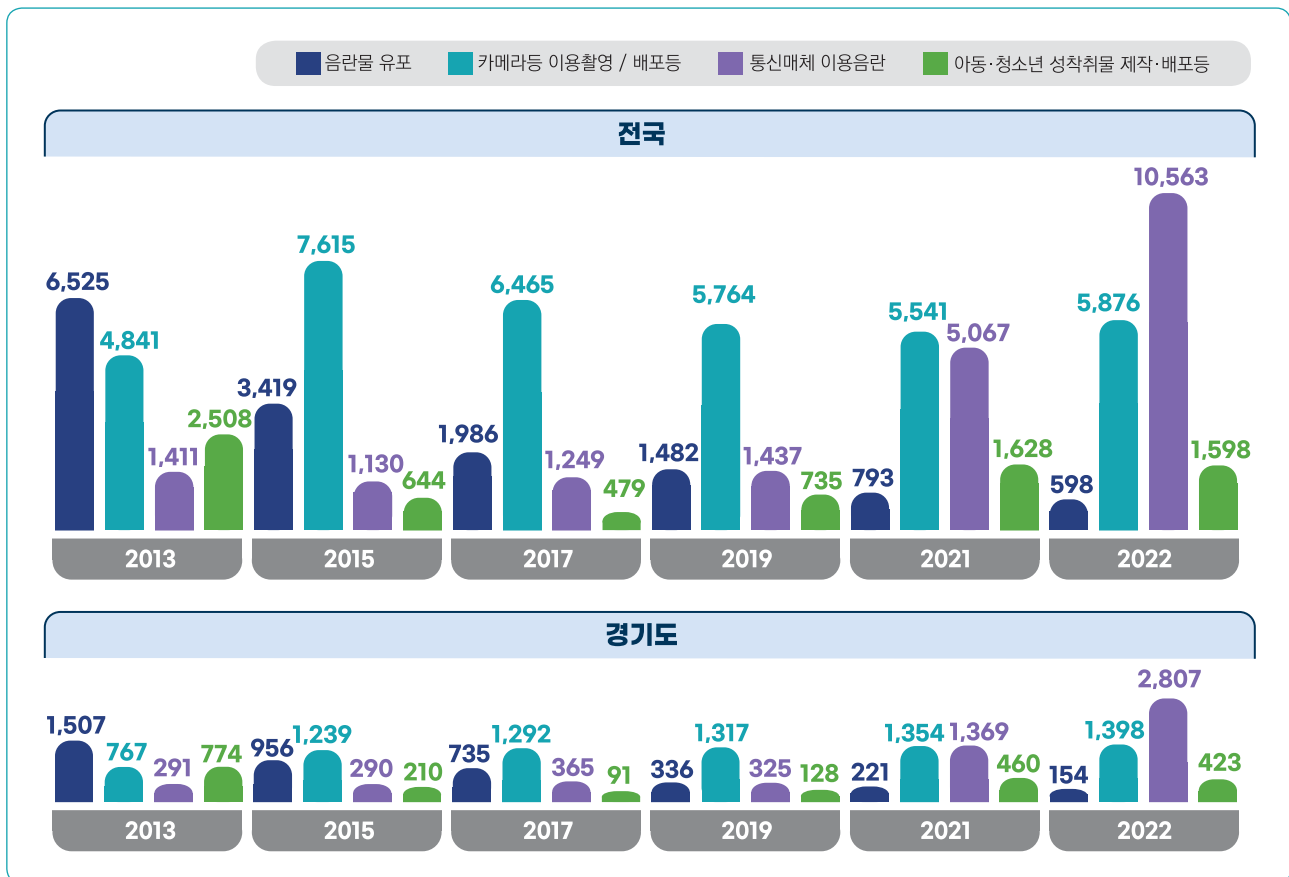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나. 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이 가장 높은 비중, 2021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비중 증가

-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경찰청 범죄통계」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항목이 일부 변경됨. 2019년부터 '음란물제작·배포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등'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2020년부터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과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등'이 새롭게 생성·분류되어 해당 통계가 집계되고 있음.
- 2013년 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분포는 전체 15,345건 가운데 '음란물유포'가 6,525건(42.5%),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이 4,841건(31.5%)으로 전체 디지털 성폭력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함. 2014년부터는 전체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2021년부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5개의 디지털 성폭력 유형 가운데 '음란물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2020년부터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2년 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분포를 보면, 총 5,149건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807건(5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이 1,398건(27.2%)으로 많았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경우, 2013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감소했으며, 2020년부터 다시 비중이 증가함.

그림 6 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2013-2022)

(단위: 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표 1 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분포(2013-2022)

(단위: 건, %)

구분	합계	음화등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음란물유포	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 강요등
2013	전국	15,345 (100.0)	60 (0.4)	6,525 (42.5)	4,841 (31.5)	1,411 (9.2)	2,508 (16.3)	-
	경기도	3,346 (100.0)	7 (0.2)	1,507 (45.0)	767 (22.9)	291 (8.7)	774 (23.1)	-
2014	전국	12,243 (100.0)	7 (0.1)	3,717 (30.4)	6,635 (54.2)	1,250 (10.2)	634 (5.2)	-
	경기도	2,392 (100.0)	2 (0.1)	1,015 (42.4)	981 (41.0)	273 (11.4)	121 (5.1)	-
2015	전국	12,815 (100.0)	7 (0.1)	3,419 (26.7)	7,615 (59.4)	1,130 (8.8)	644 (5.0)	-
	경기도	2,696 (100.0)	1 (0.0)	956 (35.5)	1,239 (46.0)	290 (10.8)	210 (7.8)	-
2016	전국	9,544 (100.0)	22 (0.2)	2,412 (25.3)	5,170 (54.2)	1,109 (11.6)	831 (8.7)	-
	경기도	2,391 (100.0)	3 (0.1)	579 (24.2)	1,218 (50.9)	352 (14.7)	239 (10.0)	-
2017	전국	10,208 (100.0)	29 (0.3)	1,986 (19.5)	6,465 (63.3)	1,249 (12.2)	479 (4.7)	-
	경기도	2,488 (100.0)	5 (0.2)	735 (29.5)	1,292 (51.9)	365 (14.7)	91 (3.7)	-
2018	전국	10,754 (100.0)	13 (0.1)	2,463 (22.9)	5,925 (55.1)	1,365 (12.7)	988 (9.2)	-
	경기도	2,866 (100.0)	1 (0.0)	816 (28.5)	1,401 (48.9)	370 (12.9)	278 (9.7)	-
2019	전국	9,430 (100.0)	12 (0.1)	1,482 (15.7)	5,764 (61.1)	1,437 (15.2)	735 (7.8)	-
	경기도	2,110 (100.0)	4 (0.2)	336 (15.9)	1,317 (62.4)	325 (15.4)	128 (6.1)	-
2020	전국	11,128 (100.0)	19 (0.2)	1,409 (12.7)	4,881 (43.9)	2,047 (18.4)	2,621 (23.6)	31 (0.3)
	경기도	3,074 (100.0)	12 (0.4)	398 (12.9)	1,384 (45.0)	534 (17.4)	701 (22.8)	7 (0.2)
2021	전국	13,844 (100.0)	10 (0.1)	793 (5.7)	5,541 (40.0)	5,067 (36.6)	1,628 (11.8)	259 (1.9)
	경기도	3,634 (100.0)	2 (0.1)	221 (6.1)	1,354 (37.3)	1,369 (37.7)	460 (12.7)	66 (1.8)
2022	전국	19,641 (100.0)	15 (0.1)	598 (3.0)	5,876 (29.9)	10,563 (53.8)	1,598 (8.1)	170 (0.9)
	경기도	5,149 (100.0)	4 (0.1)	154 (3.0)	1,398 (27.2)	2,807 (54.5)	423 (8.2)	50 (1.0)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3 | 범죄통계를 넘어: 성폭력 상담통계와 조사통계

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통계: 범죄통계와는 달리 강간이 강제추행 비율보다 다소 높아

1) 성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 수사기관의 범죄통계만으로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발생 건수의 정확한 추정이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통계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왔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 개입 및 긴급지원체계로서 현재 전국에 18개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2개가 운영되고 있음. 전국의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성폭력’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⁶⁾ 2021년에는 19,691건, 2022년에는 15,783건, 2023년에는 14,076건임.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2,160건, 2022년 1,780건, 2023년 1,597건임.
- 성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강간’이 40% 중후반대이며, ‘강제추행’으로 30% 중후반대로 나타남. 폭력 유형별 중복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청 범죄통계」와 비교할 때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2021년에는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가운데 ‘강간’은 8,368건(42.5%), ‘강제추행’ 7,543건(38.3%)이었고, 2023년에는 ‘강간’ 6,656건(47.3%), ‘강제추행’ 5,009건(35.6%)이었음.
- 경기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2021년에는 ‘강간’ 1,054건(48.8%), ‘강제추행’ 760건(35.2%), 2023년에는 강간이 741건(46.4%), 강제추행이 610건(38.2%)으로, 전반적으로 2021년에 비해 2023년에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은 지속됨.

표 2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2021-2023)

(단위: 건, %)

구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기타
2021	전국	19,691 (100.0)	8,368 (42.5)	7,543 (38.3)	2,714 (13.8)	1,066 (5.4)
	경기도	2,160 (100.0)	1,054 (48.8)	760 (35.2)	261 (12.1)	85 (3.9)
2022	전국	15,783 (100.0)	6,886 (43.6)	5,973 (37.8)	2,022 (12.8)	902 (5.7)
	경기도	1,780 (100.0)	847 (47.6)	679 (38.1)	174 (9.8)	80 (4.5)
2023	전국	14,076 (100.0)	6,656 (47.3)	5,009 (35.6)	1,738 (12.3)	673 (4.8)
	경기도	1,597 (100.0)	741 (46.4)	610 (38.2)	197 (12.3)	49 (3.1)

자료: 1) 전국: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2021 연감, 여성긴급전화 1366 2022 연감, 여성긴급전화 1366 2023 연감.

2) 경기도: 1366 경기센터 내부자료 (각년도), 1366 경기북부센터 내부자료 (각년도).

주: 1) 기타 : 공연음란(바바리맨),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등, 2) 각 피해유형은 중복 포함.

6) 2009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폭력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80% 수준을 차지함. 여성긴급전화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조.

2) 상담자 연령별 분포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연령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30% 수준)를 제외하고, 전국 기준으로 2021년에는 30대가 14.4%, 20대가 13.2%, 40대가 12.8%였음. 2022년에는 30대가 14.4%, 40대가 13.6%, 20대가 13.2%였음. 2023년에는 30대가 14.9%, 40대가 13.6%, 20대가 11.9%였음.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21년에는 30대가 16.1%, 20대가 13.7%, 40대가 13.0%였으며, 2022년에는 30대가 15.9%, 40대가 14.1%, 20대가 13.4%였음. 2023년에는 30대가 16.6%, 40대가 14.1%, 20대가 13.2%였음. 경기도의 경우도 전국과 동일하게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대, 20대 순임.

표 3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자의 연령대 분포(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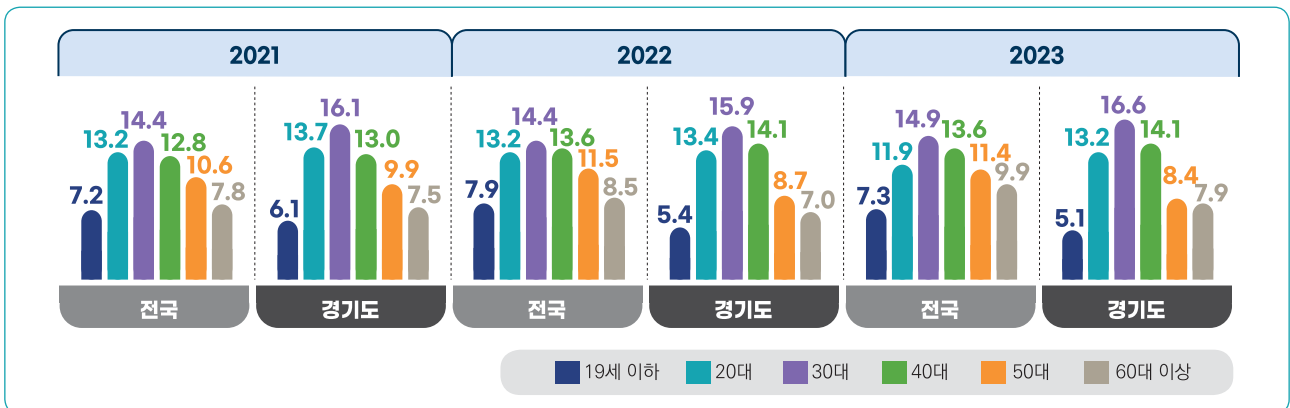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파악	
2021	전국	313,868 (100.0)	22,547 (7.2)	41,546 (13.2)	45,168 (14.4)	40,271 (12.8)	33,184 (10.6)	24,458 (7.8)	106,694 (34.0)
	경기도	40,836 (100.0)	2,476 (6.1)	5,586 (13.7)	6,592 (16.1)	5,326 (13.0)	4,034 (9.9)	3,051 (7.5)	13,771 (33.7)
2022	전국	289,848 (100.0)	22,818 (7.9)	38,328 (13.2)	41,672 (14.4)	39,323 (13.6)	33,470 (11.5)	24,774 (8.5)	89,463 (30.9)
	경기도	36,585 (100.0)	1,958 (5.4)	4,907 (13.4)	5,808 (15.9)	5,149 (14.1)	3,189 (8.7)	2,548 (7.0)	13,026 (35.6)
2023	전국	294,328 (100.0)	21,457 (7.3)	35,119 (11.9)	43,723 (14.9)	40,067 (13.6)	33,470 (11.4)	29,156 (9.9)	91,336 (31.0)
	경기도	35,268 (100.0)	1,793 (5.1)	4,651 (13.2)	5,839 (16.6)	4,960 (14.1)	2,962 (8.4)	2,781 (7.9)	12,282 (34.8)

자료: 1) 전국: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2021 연감, 여성긴급전화 1366 2022 연감, 여성긴급전화 1366 2023 연감.
 2) 경기도: 1366 경기센터 내부자료. (각년도), 1366 경기북부센터 내부자료. (각년도).
 주: 미파악 : 상담전화 특성상 위급사항 발생 등 내용에 따라 출생년월 등 세부 정보 미파악

그림 7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자의 연령대 분포(202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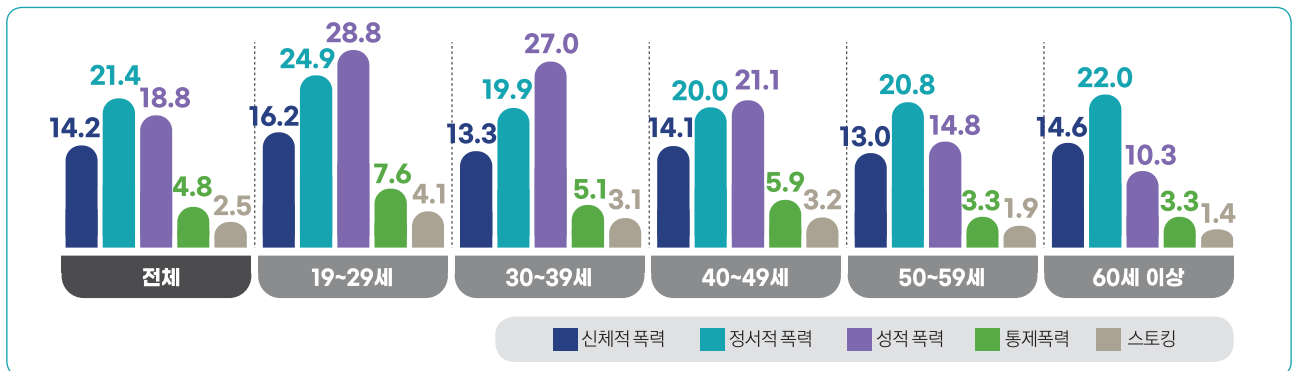


나. 조사 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경험률: 전국 기준 18.8%, 경기도 기준 성추행(미수) 31.9%

-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기반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19년 12월, 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진행됨.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가 각 개별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조사에서 누락된 폭력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 것임(제12조).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폭력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경험률을 조사한 바 있는데, 평생 동안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4.2%, ‘정서적 폭력’은 21.4%, ‘성적 폭력’은 18.8%, ‘통제폭력’은 4.8%, ‘스토킹’은 2.5%로 나타났음.

그림 8 폭력 유형별 경험률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경기도의 경우, 2022년에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률을 조사하였는데, 평생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7.1%, ‘정서적 폭력’은 40.7%로 나타났음. ‘성적 폭력’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미수 포함), 강간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성희롱은 44.9%, 성추행(미수) 31.9%, 강간 4.7%로 나타났음.

표 4 폭력 유형별 경험률 (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단위: %)

구분	친밀한 관계		스토킹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미수)	강간
소계	27.1	40.7	8.9	44.9	31.9	4.7
20~29세	19.5	31.9	16.1	44.7	33.6	3.8
30~39세	20.5	35.4	12.0	38.5	34.0	5.4
40~49세	26.4	35.7	7.9	48.7	37.6	5.2
50~59세	34.3	46.5	5.0	49.0	31.3	4.9
60~69세	29.2	49.4	5.4	43.2	23.3	4.7
70~79세	38.9	54.8	5.1	39.8	26.2	2.8

자료: 정혜원, 박철현, 심선희.(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주: 본 조사는 총 2,000명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1:2비율로 할당하여 진행하였으나 이하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가중치를 적용(여성 981명)하여 분석한 것임.

다. 숫자와 통계를 넘어서 폭력 피해의 구체적 현실에 주목할 필요

- 폭력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제도의 확대,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향상은 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상담 사례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발생한 모든 사건이 신고되거나 조사되기는 어렵지만, 경찰청 범죄통계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통계는 성폭력 사건 발생 추이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젠더 폭력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일상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조사 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이 인지하고 경험하는 폭력 피해 수준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음.
- 여성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단 한 건의 폭력이라도 폭력 피해의 정도는 심각할 수 있으며, 폭력 발생의 효과는 피해자나 주변 관계자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삶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4년 6월 28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디자인인(02-783-8582)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 「GWFF 통계 인사이트」 : 여성가족분야 주요 통계 자료중 경기도 관련 자료나 경기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분석, 가공한 자료로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됩니다. 본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00)

GWFF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통계 인사이트